



원로와의 대담

“ 학벌중심서 벗어나
학문위주의 風土를 ”

나병 퇴치운동에 평생바친

柳 駿 박사

〈柳駿醫科學연구소 이사장/연세대 명예교수〉

대담 / 朴澤奎 (건국대 이파대학장/본지 편집위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은 한국 나환자들의 인간복권과 자유와 복지를 위하여 한평생을 헌신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1년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나관리세미나에서 한국의 나병치유에 관한 특별강연에서 선생님께서 행하신 감동어린 마지막 구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7백년 이상 묵은 나병이라는 이름의 공포와 비극이 이제는 영원히 종식되었음을 국내외의 귀빈 여러분이 참석한 이자리에서 선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으

로 기억되는데요.
47년 한국나예방협회 창립
나환자라고 하면 거지와 동의어로 해석되었던 시절, 한번 나병에 걸리면 지금까지의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부의 과다를 막론하고 평생동안 소위 ‘문둥이’가 되어 한 많은 인생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암울한 시기에 나는 의사로서 커다란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세브란스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실의 젊은 의사들과 함께 1947년에 전국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뒤

한국나예방협회(현 대한나관리협회)를 발기, 창설하였지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자, 우리가 지닌 이 비극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자, 우리가 죽을때 나병도 같이 죽자” 등 나환자들의 정신재활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쳤어요. 잘 알려진 희망촌운동(Hope Village Movement)을 시작하자 그 규모와 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부랑나환자수가 감소되었고 스스로 노동을 하여 생활하는 이 운동이 점점 성과를 나타내게 되었어요. 그 결과 정신재활, 사회경제적 재활, 육체적 재활면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나병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속에서 한국나병을 한 세대안에 치유함으로써 7백여년 나병의 비극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던 선생님의 공적은 국내외를 통해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천안 호두 본고장서 태어나

나는 1916년 1월 20일에 충남 천안군 광덕면 덕암마을 일명 숯가말(숯가마 마을)에서 태어나 6년제 광덕보통학교에서 수학했지요. 우리 집안은 류관순 열사와 가까운 친척이었고 대고모할머니(할아버지의 누이동생)의 부군께서 병조판서를 지냈어요. 선친께서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지만 양반집안이었고 개화된 편이었어요.

나보다 15~16세 연상이신 형님(柳鴻)은 일찌기 상투차르고 신학문을 공부했어요. 경성고공 1회 졸업생(전기과 졸업)으로 경성방직에 근무하셨는데 중앙고보시절 김성수선생께서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학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이런 인연으로 지금까지 인촌선생님 집안과 교류하고 있지요.

저는 호두의 주산지인 광덕에서 살았는데 호두를 재배해서 학비를 조달했어요. 지금도 호두를 보면 나를 교육시켰다는 생각에 애착이 갑니다. 그래서 안양지역 등에 호두나무 묘목을 보냈는데 지금은 많이 자라서 감사의 표시로 호두를 보내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후 배재고교에 입학해서 믿음, 소망, 사랑, 박애정신 등 기독교 정신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이상을 구현하는데 과학이 필수적이라 확신하여 믿음, 소망, 사랑에 과학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어요.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여기가 뭐하는 곳인가?' 묻고는 여기가 인도주의를 구현하는 곳이다. 그리고 다음에 '그렇다면 인도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방법론이 과학이라고 강조합니다..

선생님께서 배재고보시절에 인생관을 확립하는데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셨고 나병운동도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과학을

에 귀국하여 모교에 근무, 또한 방역연구소(국립보건연구원)에 근무하다 해방을 맞게 되지요. 해방후에도 서울대 강사, 47년에 세브란스 미생물학교수(주임교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병연구를 시작했어요. 나병연구에 의학적인 접근외에 정신재활, 사회·경제적 재활을 도입하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했지요.

47년에 소록도에서 나환자거처 2천여명을 신체검사 했더니 95%가 일할 수 있는 체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 나환자거처들이 집집마다 구걸하면



◇ 나환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인간답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희망촌운동을 시작한 柳駿 박사(초가 박택규 본지 편집위원장과 대담하고 있다.)

신념으로 삼은 선생님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주창하시는 'Science with Humanity'는 오늘을 사는 모든 과학자들이 명심해야 될 기본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성의전을 졸업하시고 소록도 나환자촌에서 근무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려 주십시오.

나환자 희망촌운동에 앞장

41년에 경성의전(4년제)을 졸업했는데 처음 소록도에 간 것은 3학년때이며 졸업후 1년 정도 일했지요. 42년 일본 규우슈우대 의학부에 입학, 44년

서 문전걸식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거지노릇 하지 말고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희망촌운동을 시작했지요. 주말이면 세브란스의 과대학생, 간호원들과 함께 미군에게서 얻은 약을 들고 찾아가서 무료치료를 했어요. 망우리 공동묘지 옆에 터를 잡아 흙벽돌을 만들어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해서 김장꺼리, 감자 심고 그랬더니 부식이 되더군요. 정부에서 나환자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으로도 이 사람들이 거지노릇 안하고 살 수 있더군요. 여름 방학에 세브란스의대생, 간호원 15여명

이 주축이 돼서 이 희망찬운동을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16개의 정착촌이 생겨서 5천여명의 나병거지들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50년말(1.4후퇴때)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57년 큐우슈우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 그리고 UCLA에서 다시 의학박사(PhD)학위를 받으시고 87년에는 캘리포니아대(UC)에서 외국인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UCLA서 또 醫博학위

미국 UCLA에서 세계적인 미생물학자이며 나환자인 카펜터(Carpenter) 박사의 전염병학교실에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전쟁에 진 일본 대학의 의학박사가 뭐 그리 대단한가 미국에서 PhD를 받아야지 그런 욕심이 생겨 결국 일본 의학박사 학위와 미국 PhD를 함께 취득한 좀 드문 학자가 됐지요. 상복도 많아서 85년에 UCLA 동창상(모교를 가장 빛낸 사람)을 받았고 87년에는 캘리포니아대 9개 캠퍼스의 외국인 졸업생 중에서 인류복지에 현저히 공헌하여 U.C를 가장 빛나게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The Elise and Walter A. Hass International Award)도 받았지요.

선생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부인 · 아들 · 사위 의사가족

전에 영등포에서 병원을 경영했던 내자 국순화(산부인과 의사)와는 해방되던 해인 45년 5월에 결혼하여 내년이 결혼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장남 옥

(36·의박·연세대 의대강사), 자부 장수경(의사·류준 의과학연구소에서 피부과 개업), 사위 오중산(37·개업의) 등 의사가족입니다.

국민학교 2년생인 영선(9), 유현(7), 유승(3) 등이 친손자·손녀들이지요. 나는 지금까지 투철한 목적의식을 갖고 일한 것에 대한 자기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수백년 동안 인간대접을 받지 못했던 나환자들에게 자립심을 심어주고 그들의 인간권리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에 대해 큰 보람과 함께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할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60년 제1회 대한의학협회 학술상수상을 비롯하여 62년 국가공익포상, 세계기독교 선명회 63년도 인물상, 91년의 자랑스러운 배재인 공로패 등 많은 상과 공로패를 받으셨는데 특히 94년도에 간디기념나병재단에서 수여하는 국제 간디상(International Gandhi Award) 수상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상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디상수상 자랑스러워

간디상은 간디가 생전에 주장한대로 인도의 진정한 독립은 나환자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신조를 바탕으로 간디기념나병재단에서 수여하는 것으로 간디가 암살당한 1월30일에 시상하는 상입니다. 2년에 한번씩 인도인 1명, 외국인 1명에게 시상하는데 금년도는 시상은 인도대통령이 직접 하겠지요.

이상의 수상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한국의 나환자들은 그들의 인권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柳駿 박사님은 이러한 숭고한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전생애를 바치시어 저주받은 나병과 싸워야만 하는 전세계의 찬란한 빛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위대하며 숭고한 경지에 이른 인간애로 점철된 인생이셨습니다”

선생님의 인생관을 말씀해주시고 곁들여서 한국의 과학기술인들에게 몇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성 높은 민족」 自負

학문에는 국적이 없으나 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으나 믿음, 소망, 사랑에 반드시 과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학문에 자율성이 확보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학문이 정치에 휘말려서도 안되고 학문의 질이 정확하게 평가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겠어요. 학벌중심에서 벗어나 학문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금속활자, 고려자기, 거북선 이것들이 세계최초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창조성이 있는 민족이라는 자각과 함께 우리 자신이 하는 일에 주목해야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잘한다고 서로 칭찬해주는 분위기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위대한 창조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학과 인도주의의 참의미를 깨우쳐주시는 선생님의 공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건강속에 더 큰 보람을 이룩하시기를 바랍니다. 